

## 초임장교 포교 대책 시급하다

육사 제외한 공·해사 불자 졸업생 감소

육·해·공군사관학교와 3사관 학교, 간호사관학교에서 불자장교들의 졸업법회가 연이어 열린 가운데 초임장교 포교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자광)는 2월 7일과 14일, 20일 각 군 사관학교에서 졸업법회를 개최했다.

2013년 육·해·공군사관생도 졸업법회 인원은 2012년과 비교해 총 174명에서 175명으로 대동소이했으나 육군만 크게 늘었을 뿐 해군과 공군은 감소했다. 게다가 3사관학교 불자생도는 169명에서 150명으로, 간호사관학교 불자생도는 24명에서 17명으로 크게 줄었다.

군포교 현장에서는 지휘관들의 종교에 따라 사병들의 종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교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홍래 준부사관불자회장은 “군의 특성상 지휘관의 눈치를 안볼 수 없다”며 “특히 지휘관이 독실한 개신교일 경우 사찰에 오지 않는 간부들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김병관 前 군불총 회장도 2007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할 자리에서 “부대 지휘관의 종교에 따라 부대 전체의 종교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한번도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병들은 중대장이나 소대장 같은 중간 간부들을 보며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군종교구는 장군 진급과 중대장 부임시 지휘관을 선물하는 등 장교 포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부족인 상황이다.

군불교 차원에서 장교포교는 군내 사조직 활동이 금지되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사관학교 등 생도 때부터 불자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생도에 대한 포교는 사관학교 차원에서 각 종교의 불광공제식 선교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 불교에 유리한 면이 있다. 육군사관학교 호국화랑사에는 1~4학년까지 900여 명이 교육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병 포함 기관병 등 평균 200~250명의 군불자들이 법당을 찾는다.

장성화 군종교구 총책기획실장은 “교구에서 초임 장교들을 중심으로 종단 신도증 발행을 해주고 교구장 스님이 직접 연락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사관학교에서 유발상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발상좌 제도는 생도 기간동안

3사관 및 간호사관도 줄어

ROTC·부사관 등에도 관심

유발상좌 제도 실효 보려면

영의 신행 사찰 참여해야

3~4학년 때 스님들이 장교들에게 직접 신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발상좌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부대 인근 사찰과 장교가 신행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사찰의 스님들이 상좌제도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익환 예비역불자회 총무는 “군 장교들은 순환 근무로 인해 옮겨다니기 때문에 본 가정 인근의 사찰 등에서 상좌제도에 참여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오랜 기간 한 부대에서 활동하는 부사관 등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ROTC(학군사관후보생) 출신 전현직 장교 불자들은 2월 21일 육군회관에서 ROTC불자연합회를 구성하고 후배장교의 법회 지원 등에 나설 것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할아버지와 '강남스타일'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2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회갑·칠순·팔순을 맞이한 자원봉사자 어르신 45명을 초청해 '9988 백수연'을 열었다. 이날 서울 자양동 효치어린이집 어린이들도 함께해 풍물공연과 가글-이나은 기자·사건·박재원 기자

## 사회정책 협의위한 불교 전문위원회 필요

조계종 불교사회학, 양극화 해법 기초 연구서 발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현상이다.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불교계의 해법 모색은 요원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이 처음으로 양극화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한 연구서를 최근 발간했다.

<한국사회 양극화 현상과 불교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연구서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총론적 연구물로 책임집필위원회는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이, 공동집필위원회는 홍현호 시민사회경제연구소장, 권경임 복지영성연구소장이 참여했다.

불교계 안팎의 전문가들이 꼽은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홍현호 위원은 경제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복지 수준을 비롯해 △신자유주의 악영향 △과도한 수출만능주의 △고용없는 성장 △중소기업 임지 약화 △제조업 위주의 기술 진보 등을 꼽았다.

실제 한국의 GDP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중은 7.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2%보다 11.6%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복지 지출액이 OECD 평균보다 143조여 원이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 위원은 “양극화 현상이 발생해

도 복지 수준이 높은 국가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복지 수준이 과도하게 낮아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한 불평등 해소 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진적 개량으로 내수 기반이 붕괴되고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양극화 원인

경제수준 보다 낮은 복지

고용없는 성장의 악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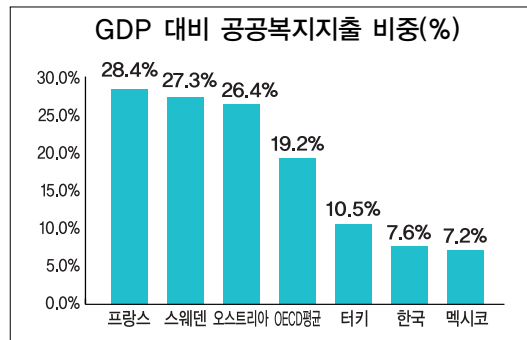
불교적 해법

사회적 안전망 구축위한

자리아타의 복지 추진

사회 문제 전문 연구도

여력과 인적 개발이 소진됐다. 이명박 정부의 인위적 교환을 정책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 정책으로 서민 경제의 악영향을 미쳤다”며 “제조업 분야 투자는 크게 늘고 있으나 일자리는 427만개에서 408만개로 감소했다. 고용없는 성장 역시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복지국가 체제를 주목했다. 사회통합적 관점에서의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국가 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축소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은 불교계가 가져가야 할 사회적 역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권경임 위원은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이 낮은 것은 정부 정책이외에도 보조금과 지원에 안주해 안이하게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불교를 비롯한 사회복지계의 책임이 크다”며 “불교는 자체 조직을 활용해 복지공공체를 만들어 국민이 복지의 주제로 바로 설 수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역사회와 사찰 간 연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교적 해법으로 △현 결사추진본부, 노동위원회와 같은 사회정책 협의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 △종단 산하 사회정책 아카데미 개설 △문화와 사회정책의 통합적 연구와 프로그램 기획 △복지국가 수립과 행복 지수를 함께 높이는 정책 제시 △글로벌 불교 연대를 통한 사회 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연구서는 “불교계는 현 시대에 맞는 사회 이념을 제시하고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물질, 정신적 복지에 대한 방안과 자본주의의 탐욕스런 경제를 극복하는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사회연구소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3푸어’ 등 세부적인 양극화 연구에 들어가며,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 종단 목적 자금 운용체계 만든다

조계종 자금관리령 입법예고

조계종이 교육 불사를 비롯한 포교, 문화 사회 등의 목적 사업을 위한 자금 운용 체계가 마련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금관리령’ 제정안을 2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종단은 교육, 포교 진흥, 문화, 사회, 전산, 정책 연구에 대한 자금을 종무회의 의결을 통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자금의 운용은 총무원 기획실에서 담당하게 되며 관리의 재무부에서 이뤄진다.

또한 자금의 예산을 포함한 운용계획서를 발간하고, 이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차기 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자금 운용 부서의 장은 자금 사용 내용을 출원 기관과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자금의 투명성을 높였다.

한편, 조계종은 오는 3월 4일까지 ‘자금관리령’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은 후 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문의 (02)2011-1751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929호 INDEX

종합 2·3  
조계종 총리법 개정 빨간불  
정진 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교불련 창립 25주년

국제불교학교 1기 졸업식 5



테마가 있는 사찰기행 12  
양양 낙산사

화엄만다라-진오 스님 16·17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동안거 해제 종정·방장 법어 8면

## 최단 기간 200만 부 베스트셀러 등극! (비소설 분야)

“사랑하는 이의 소중한 인생에 선물해 주세요.”

용기를 주고 싶을 때, 사랑을 전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선물한 책 1위! 200만 독자의 선택!



《월스트리트저널》이 극찬한 '영혼의 멘토'!  
'차세대 리더 300인'으로 선정된 헤민스님의 인생 집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지음·우창현 그림 | 값 14,000원



## 정목 스님이 마음으로 추천하는 책!

“따뜻한 체온으로 읽는 이의 가슴을 적셔놓는 이 책은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친구의 손길 같습니다.”-정목

마음의 감옥에 갇혀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며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

나의 치유는 너다

김재진 지음 | 값 14,000원

